

사설

# 세계화의 뒤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며칠전 부산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가 열렸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나라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통합의 노력을 시도했다. 이번 대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결실이라고 본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거센 파고는 우리를 포함해 전세계인이 부딪혀야 할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의 국소적인 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로 뭉치고 더 큰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 각 나라는 덩치를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을 태동시키면서 그 세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으며, 아메리카도 미국과 남미를 하나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다. 또 아시아에는 아펙이 존재하고 있다. 아펙은 미, 중, 러, 일 등 세계 초강대국이 모두 포함된 세계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라는 점에서 그 위세가 더더욱 크다. 아펙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세계가 커다란 벨트로 묶여가는 동안, 세계화를 거부하는 움직임 또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아펙에서도 아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거부하려는 집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개발도상국을 위시한 약소국에서 더욱 강하다. 세계화와 자유무역화가 인류의 미래에 가져다 줄 열매가 적지 않겠으나,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폐해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이주민들의 폭동이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인종차별과 문화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폭동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도 따지고 보면 불경기와 실업이라는 경제문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라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동유럽국가로 공장을 옮기면서 벌어진 구조적 문제가 야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그것이고, 비정규직 문제가 그것이며, 나라가마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농민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화가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면, 이제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방적인 한쪽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준비와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카리옹



기획부 정기자 박재인

법적으로, 청소년은 성인의 경우와 같은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9월 최저임금법의 개정예 따라 모든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3,100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 7월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단속 결과 51개 업소에서 90건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아보자.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인 3,100원은 책정에 문제가 있다. 이 결정은 노동계 위원 9명이 사퇴하고 공익위원과 재계 인사 16명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형 분식집 등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3,100원을 주면 가게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다음번에는 그것을 정하는 기준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상태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융통적이며 현실적인 방향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고용은 매우 까다롭다. 이는 청소년 고용이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서의 보호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제도적 개선 필요

그러나 청소년은 취업을 위해 호적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혹은 취업인허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듯 고용주 입장에서는 성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번거로워 청소년 고용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연소자 보호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수요와 공급 수위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최저임금에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추어 준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어 학교와 업소 등에 배부하고, 관련 정보를 알리는 광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시설과 창구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제도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그들 중 일부가 집안 사정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기 때문이 아니다. 현대의 청소년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한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사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들의 위치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의 노력으로 서구 사회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직업 탐색, 올바른 경제 개념 확립의 기회가 되는 훌륭한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기자 수첩

0... 온라인만화를 취재하면서 미디어다음이 제주도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감에 빠졌다는..... 만나지도 못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미디어다음측에서는 6시 반까지 뉴스편집하느라 바쁘다고 그 이후에 연락하자고 하셨다. 그때는 연습이라서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는데 메일을 안받으신다. 제길. 혹시 몰라서 토요일 오후 3시에 미디어다음에 전화를 하니깐 받으신다는... 미디어다음 담당자분. 너무 일 많이 하신다. /김태훈 기자

0... 20대 학부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스무 살' 선본의 부 후보 최성립 학우는 평소에도 자주 보는 화학과 동기 형이다. 내 생일때 생일빵을 때려주겠다고 나를 헐박하던 성립이 형. 인터뷰를 가자 뭐거 어색한 기운이 돌더니, 처음에는 반말을 쓰던 그. 접차로 말의 어미가 달라지더니

존댓말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허허 난감한지. 그러나 인터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야~! 끝났냐? 너 숙제 다 했어? 나 숙제좀 도와줘라!"라며 다시 Toggle되는 성립이 형. 으흐흐 이럴 때 취재가 갖는 이상한 장벽을 느낀다. 벽 하나 쌓아두고 그 위로 야식도 받고 돈도 주고 취재도 하고. /전준 기자

0... 이번 기사를 쓴다는 핑계로 노트라다무스에 대한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미리 예언했다고 한다. 하인이 노트라다무스에게 "내일 뵙겠습니다" 하니, 노트라다무스가 "내일 해가 떠도 나는 숨을 쉬지 않을걸세"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과연 행복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사소할지라도 그것 역시 행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박종완 기자

0... 이번 학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한달정도 남았군. 이번 학기 신문도 한번만 더 만들면 끝이 난다. 가을 학기가 시작하고, 처음 마음이 짐과는 다르게 공부도 제대로 안된 것 같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나를 비롯한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많은 시간을 심각한 고민으로 흘려보내는 때가 있어도,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당장 이번 학기 학점이 걱정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강철근 기자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이화원**

**“전국 꽃배달”**  
꽃바구니·꽃다발  
관엽식물·초화류  
축하화환·근조화

TEL 042)861-1288  
FAX 042)863-3288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첨단상가 11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 게벼?